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수업 실태 조사

이 성 립  
(영신고등학교 교사)

---

Lee, Sunglim. (2001).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 49-7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from English teachers' perspectives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curriculum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which became effective in 2001 for middle schools. With such a goal,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middle school teachers of 7th-grade English. The study discusses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that teachers experience when they teach 7th-grade English classes. The study also discusses solutions and alternatives proposed by teach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English curriculum.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1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핵심으로 하며,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의 교과 선택권 부여 등 이전의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준비 단계에서는 시범학교의 연구 사례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용숙, 1998; 조난심, 1997), 현장교사들에게서는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비교육적인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전교조에서는 교과 선택제 유보, 사립

학교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수정 고시를 주장하였다 (김석근, 2001; 동아일보, 2001. 11. 12). 현 시점에서는 실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교실 수업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7차 교육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수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 교사들이 겪는 문제 및 그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을 살펴봄으로써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수요자 중심, 학습자 중심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주요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의 교과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교과별 능력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치로서 이전의 교육과정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 결손을 예방하여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해당 단계 교육과정의 기본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해당 단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특별보충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학습 결손의 보충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업 성취도에 근거하여 실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을,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실태 조사는 이 두 유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또다른 특징은 고등학교 2, 3학년생에게 자신의 적성,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올해 7차 교육과정

의 적용을 받는 중학교 1학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는 올해가 실시 첫 해인 관계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고, 다만 실시 전 단계에서의 연구 학교 운영 사례에 관한 보고가 있다. 이화진 등(2000)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 관련 연구물 및 각 시·도의 지침과, 연구 학교의 운영 사례, 그리고 초·중등 교사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7차 교육과정 관련 문서나 각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며, 각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6개 연구 학교의 사례에 의하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동질 집단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용이해지고, 학생의 수업 집중도가 향상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하위 집단 학생의 열등감, 소외감에 따른 학습 포기나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그리고 진급 기준 설정이 어렵고 수준별 평가가 불가능한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특별보충과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 여건 등의 이유로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을 반대하였으며, 수준별 이동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남규 (2000)도 시범 학교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패 사례를 인용하면서 능력별 반편성 수업의 결과 학교에 따라 하위반이나 평균반의 성적, 또는 학교 전체 성적이 하락하였음을 지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학기중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할 때 학급 학생수 및 진급 기준의 설정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신뢰도 등이 문제로 대두되며 특별보충반의 학생들에게는 수업이 주당 44시간까지 늘어나는 등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고충이 가중됨을 지적하였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가 초기의 능력별 '속진, 재이수'에서 '재이수'만 남게되고 다시 '진급형'으로 변모되면서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화 학습을 지원한다는 근본 취지가 퇴색되었음을 비판하였다.

신기영 (2001)은 8명으로 구성된 부진아반 운영 사례를 보고하였는데,

구성원 학생 개개인의 학습 정도 차이가 심해서 8명의 부진아반 조차도 동질집단으로 설정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해서는 개별 지도가 가능할 만큼 학급당 인원수를 2-3명 정도로 해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7차 교육과정의 준비단계에서 우려했던 문제와, 연구 학교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구체화되는지 전반적인 영어수업의 실태를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설문 조사 방법 및 대상

설문 조사는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온라인 설문 방법을 택하였다. 전국 영어교사모임의 협조를 얻어 설문 조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응답자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설문에 응하거나, 문서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회송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 내용은 관리자 이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은 편의상 전국영어교사모임 정회원으로 제한하여, 그 중 중학교 1학년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설문을 의뢰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총 55명이며, 동일 학교의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총 55개 학교의 사례가 수집된 것이다. 다만 설문 조사 대상을 전국의 영어교사집단에서 임의 표본추출한 것이 아니며, 응답자의 수가 적고 지역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분석 방법

설문 문항은 조사 목적에 맞도록 자체 개발하였는데, 각 문항 및 선택

지는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취지와 준비 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현장 교사들과의 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영어 수업에 관한 것이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영어 수업의 실제,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수는 총 42문항이며 객관식 문항과 주관식 문항이 혼합되어 있다.

설문 분석방법으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사용하는 기술적 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비율은 무응답 자까지 포함하여 백분율을 계산하였으나, 문항별로 전체 해당자의 총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보충과정에 관한 문항에서는 실시한다고 답한 54명을 전체 총수로 하여 각 비율을 계산하였고, 심화·보충수업에 관한 문항에서는 실시한다고 답한 34명을 총 수로 하여 각 비율을 계산하였다.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1. 응답자 배경에 관한 문항 분석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28명(51.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남, 경북 11명(20.0%), 전남, 전북 7명(12.7%)이고 충남, 충북과 강원지역은 각각 4명(7.3%)이다. 응답자들은 모두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경력별로 보면 5년 미만, 또는 10-15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응답자의 교육경력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교육경력

교육경력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년이상	계
응답수(명)	24	6	14	6	5	0	55
백분율(%)	43.6	10.9	25.5	10.9	9.1	0	100.0

## 2.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 분석

총 응답자 55명 중 1개 학교만 '재이수형' 과정, 즉 동일학기에 7-a, 7-b 단계를 모두 개설하는 유형을 선택하고 있으며, 54개 학교가 '진급형' 과정, 즉 진급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특별보충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답하였다. '진급형'을 실시하는 54개 학교 중 50개 학교가 현재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실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계획대로 철저히 실시한다'고 답한 경우는 33명(61.1%)에 그치며 '형식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수가 20명(37.0%)에 이른다.

특별보충과정의 실시에 관해서는, 실시 시기는 학기중(42명, 77.8%)이 방학중(6명, 11.1%)보다 더 많은데, 이는 교사의 수업시수가 자동적으로 가중됨을 뜻한다. 대상학생 선정은 47개 학교(87.0%)에서 정기고사성적으로 자동결정하며, 학생들의 희망(5명, 9.3%)이나 적성, 진로 등은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의 참여를 유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학업성취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정하는 경우 교육부에서 제시한 40%(28명, 51.9%)가 가장 많으나 40%이하(9명, 16.8%), 50-70%(5명, 9.3%) 또는 하위 20등, 40점 미만 등 학생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담당교사의 선정은 37명(68.5%)이 교과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답했으며, 기타 의견에서 11명(20.3%)이 '1학년 담당교사로 자동결정'된다고 하였다. 어떤 경우라도 1학년 담당교사를 비롯한 영어과 교사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진급 결정에서는 평가나 출석률을 고려하는 경우와 자동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진급 결정요인으로는 재평가 성적이 14명(25.9%), 출석과 성적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5명(9.3%)이지만, 출석률만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8명(14.8%), 평가나 출석률과 상관없이 자동진급되는 경우도 25명(46.2%)이었다. 61%가 출석만 하거나, 참석하지 않아도 자동진급되는 상황이라면 특별보충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따라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특별보충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부정적인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보다 두 배정도 많았다. 각 응답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특별보충과정 실시 후 학습 결손의 보충 효과

특별보충 효과	매우 효과적	효과적	그저 그렇다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계
응답(명)	1	9	24	17	3	54
백분율(%)	1.9	16.7	44.4	31.5	5.6	100.0

특별보충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초등 영어학습의 결손 누적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교사의 수업 부담 가중과, 자동 진급 결정에 의한 형식적 운영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각 항목의 응답 율은 [표 3]과 같다.

[표 3] 특별보충과정과 관련한 문제

특별보충과정과 관련한 문제	응답수(비율 %)
초등 영어 결손에 따른 실력 차를 극복하기 힘들다	44(81.5)
교사의 수업부담 과중	39(72.2)
자격미달학생의 자동 진급 결정	37(68.5)
출석률 저조 및 참여 동기화 부족	31(57.4)
학교사정 무시한 채 예산 집행을 위한 강제적 실시	26(48.1)
참여학생의 사기저하	24(44.4)
특별보충 학급당 학생수 과다	16(29.6)
기타	4( 7.4)

특별보충과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사들은 학생수 감소 같은 미시적인 해결책보다는 학교 재량권 확보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해결책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에 제안된 해결책은 초등영어

교육 폐지 또는 초등·중등 영어의 연계성 강화,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 개편, 유명무실한 제도 철폐 등 제도적 차원의 해결을 요구한 경우와, 교사증원, 수업시간 확보로 인한 철저한 지도 보장,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현실적 여건 개선을 촉구한 경우로 나뉜다. 그 외에도 단지 영어실력 뿐 아니라 전체 학업수행 능력이 낮은 학생의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4] 특별보충의 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

특별보충에서 우선적 해결책	응답수(비율 %)
학교 재량 운영권 확보	22(44.4)
교사의 수업시수 감소	17(31.5)
특별보충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소	10(18.5)
기타	9(16.7)
무응답	4

### 3.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분석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의 난이도를 달리하도록 하는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명(61.8%)이며, 이는 위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 비율보다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 4명이 학급내 소집단별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고 답한 것을 보면, 교사들이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능력별 이동수업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 비율은 위의 응답율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되나, 본 논의에서는 운영한다고 답한 34명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집단 편성 방법은 능력별 반편성(12명, 35.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급내 수준별 소집단 편성(10명, 29.4%)이며, 기존 학급 구성 그대로 하는 경우(4명, 7.4%)도 있다. 편



성기준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인지 대부분 정기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19명, 55.9%), 상대적으로 교사의 평가에 의한 편성(10명, 29.4%)은 비율이 낮았다. 편성시기는 학기초가 5명(14.7%), 중간고사 이후가 13명(38.2%)이며 수업 차시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경우는 12명(35.3%) 뿐인 것으로 보아 대부분 수준별 집단이 일단 편성되면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해당 학습 내용의 난이도나 수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업을 교사 재량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화·보충과정의 교재에 관해서는 교과서의 심화/보충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11명, 32.4%)보다 교사나 교과협의회에서 자체/공동 개발하는 경우(14명, 41.2%)가 조금 높으며, 교과서와 자체 개발한 교재를 모두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5명, 14.7%)도 있었다. 이는 현재 교과서의 심화/보충 부분만으로는 각 학교의 심화, 보충 수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현장 교사는 심화, 보충 수업용 교재 개발이라는 업무 부담을 한 가지 더 안게 됨을 뜻한다.

수준별 심화·보충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한 21명에게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들이 답한 이유는 ‘이질집단 협동학습으로 대체해서(2명), 수업시수가 부족해 진도확보가 어려워(3명), 교사업무 부담이 커서, 학습분위기 통제가 어려워, 동일 집단 내에서도 학생수준 격차가 심해서, 학생들의 사기가 저하되서, 실시했으나 효과가 없어서 폐지함’ 등이 있었으며, 읍, 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한 학년 전체 15명)에서는 초등 영어학습의 결손이 심각하여 학년 전체의 실력이 낮으므로 전체에게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할 뿐,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할 여지가 없다고 답하였다. 교육과정이 항상 도시 중심으로 계획, 운영되면서 소규모 학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중간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각 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5]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심화·보충 수업의 중간평가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계
응답(명)	0	6	17	6	4	1	34
백분율(%)	0	17.6	50.0	17.6	11.8	2.9	99.9

교사들이 지적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었다. 응답 내용을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기타 의견에서는 수준별 집단을 심화, 기본, 보충 3단계로 나누는 것이 학생들의 수준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형식적 구분일 뿐이어서 오히려 수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형식적 운영을 조장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3단계의 집단 구분에서는 기본과정의 학생이 희생되기 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6]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	응답수(비율 %)
교재개발 등 교사업무 부담	24(70.6)
학습 집단 간 위화감	13(38.2)
학습 동기 및 학습 효과 감소	12(35.3)
교사의 수업시수 가중	10(29.4)
기타	5(14.7)

현재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사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첫째, 교육 환경 등 여건의 개선에 대한 입장이 있다. 학습집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선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필요하며, 개별 지도가 가능할 만큼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수준별 집단을 나눌 필요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으로는 교사의 잡무 경감,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적정 교사수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서 현 제도하에서 개선책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내실 있

고 다양한 보충·심화용 학습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과, 교사간의 정보교환 및 자료 공동개발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효율적 학습을 위해 집단의 수준을 심화, 기본, 보충 3단계가 아니라 4-5 단계로 세분화하여 집단 내에서 동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다 강도 높은 입장으로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도 있었다. 학습집단 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학습 동기를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질 집단 협동학습'을 일부교사들이 이미 심화·보충 수업의 대안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집단구성원끼리 협력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어떤 교사는 능력별 이동 수업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앞으로는 수준별 소집단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 반면, 학급내 수준별 학습에 실패한 어느 교사는 반대로 학급내에서 조별 협력 학습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학급간 이동수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답을 하기도 하여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학급내 수준별 학습이나 그 어떤 쪽도 현재의 교육적 여건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 4. 영어 수업에 관한 문항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별로 재량 활동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40개 학교(72.7%)에서 영어를 현재 재량활동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으나, 15개 학교(37.5%)만이 수업과는 별도 내용으로 진행할 뿐이고, 23개 학교(57.5%)에서는 그 시간에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보면 재량 활동 시간에 별도의 내용을 다루었으나, 진도나가기가 벅차서 다시 정규수업 내용으로 바꾸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그 이유는 뒤에 논의할 교과 시수와 교재 분량과 연관이 있다. 주당 영어 수업시수가 3단위로 줄었는데, 교재 분량은 줄지 않아서 정규 수업만으로는

진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실시 후 교사 자신의 수업 방식이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에 18명(32.7%)이 변화하였다고 대답했고, 13명(23.6%)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가 22명(40%)이었다. 교사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로부터 강요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수업에서의 영어사용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44명, 80.0%)가 45분 수업에서 50% 정도 영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사용하는 영어 표현은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와 지시어가 가장 많고(28명, 50.9%), 의례적 인사말만 쓰는 경우(9, 16.4%), 내용설명까지 모두 영어로 하는 경우(12명, 21.8%) 등 성격상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업내용과 학생들의 수준 및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영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를 못 알아들은 학생들을 위해 뒤에 우리말을 덧붙이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에서 영어사용을 회피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36명, 65.4%), 학생들이 호응하지 않아서(16명, 29.1%)가 주된 이유이고 교사의 영어가 부족해서(10명, 18.2%) 라는 응답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업이 산만해져서,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흥미를 잃게 되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등이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에서의 영어 사용이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단지 교사의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인지, 교사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화 연수만이 교실 영어를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영어 사용은 주로 말하기 수업에서만(37명, 67.3%)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하거나(5명, 9.1%),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10명, 18.2%)도 있었다.

한 단원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activity)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비율은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한 단원 수업에서 학생간 활동의 비중

학생간 과업 비중(%)	5-10	15-20	25-30	40-50	60-80	무응답	계
응답(명)	7	15	18	9	5	1	55
백분율(%)	12.7	27.3	32.7	16.4	9.1	1.8	100.0

교재 활용에 관해서는, 교과서의 기본 내용을 모두 다룬다고 답한 교사는 35명(63.6%)이었고,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보조자료를 자체 개발한다고 답한 교사가 19명(34.6%)인 것으로 보아 대체로 교과서 내용에 충실하게 지도하면서, 일부 교사들은 수업 환경에 맞게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에서 활용하는 매체에 관해서는,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많은 교사들이 유인물과 녹음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영자신문이 있었다.

[표 8] 수업에 활용하는 매체

수업 활용 매체	응답수(비율 %)	수업 활용 매체	응답수(비율 %)
유인물(handout)	50(90.9)	비디오	22(40.0)
카세트 녹음기	45(81.8)	실물화상기	12(21.8)
컴퓨터	41(74.5)	OHP	9(16.4)
단어, 그림카드	39(70.9)	인형, 소도구	9(16.4)
40인치 대형화면	32(58.2)	기타	2
인터넷	27(49.1)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표 9]와 같다. 교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수준 차이이며 두 번째가 과다한 교재분량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량활동에서 정규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한 많은 교사들의 설명에 의하면 주당 영어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는데도 교재 분량은 전혀 줄지 않아서 진도 나가기가 너무 벅찬 상황이라고 한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이미 영

어를 배운 점을 감안하여 제작된 교재가 학생들의 실제 수준에 비해 무척 어렵다는 것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초등 영어에서의 학습 결손이 심해서 학생들이 중학교의 영어를 소화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타 어려운 점으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감과, 초등 영어 학습 단계에서 이미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표 9] 정규 수업에서 어려운 점

정규 수업에서 어려운 점	응답수(비율 %)
학생간 실력 격차	44(80.0)
과다한 교재 분량	39(70.9)
높아진 교재 수준	33(60.0)
교재 및 교자재 개발 부담	24(43.6)
과다한 수업시수	19(34.5)
기타	2

## 5. 제7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분석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표 10]에서와 같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대한 입장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무응답	계
응답(명)	0	13	16	12	13	1	55
백분율(%)	0.0	23.6	29.1	21.8	23.6	1.8	99.9

교사들이 생각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장점으로서는, 말하기, 듣기 능력이 나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 강조와 교재내용의 참신함 등에서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에,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보충과정이나, 수준별 학습, 학생의 교과 선택권 등과 관련한 항목은 응답율이 낮았다.

기타 의견은 '장점이 없다(2명),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이 전혀 안 된다(2명)'는 내용이 있었다.

[표11] 7차 교육과정의 장점

7차 교육과정의 장점	응답수(비율 %)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 강조	31(56.4)
말하기 듣기 강화	29(52.7)
교재 내용이 참신하고 흥미로움	26(47.3)
학업 결손 보충	6(10.9)
수준별 개별학습 제공	2(3.6)
학생의 교과 선택권	0(0.0)
기타	4
무응답	1

제7차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으로서 교사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초등 영어교육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중학교 1학년부터 수준차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 교사의 업무 과중과 교육과정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기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영어과의 주당 수업시수는 줄고 진도 부담은 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12]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응답수(비율 %)
학생간 수준 격차 심화	44(80.0)
초등 영어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38(69.1)
교사의 수업시수 증가 및 업무 부담 가중	35(63.6)
특별 보충 과정 등의 형식적 운영	31(56.4)
능력별 수업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및 학습동기 저하	16(29.1)
기타	1
무응답	1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때 교사들은 대체로 7차 교육과정이 현장 적용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7차 교육과정의 중간 평가

7차 교육과정 중간평가	매우 성공적	대체로 성공적	그저 그렇다	대체로 실패	완전히 실패	무응답	계
응답(명)	0	1	20	26	6	2	55
백분율(%)	0.0	1.8	36.4	47.3	10.9	3.6	100.0

마지막 설문 문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또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자유로이 기술하게 하였는데, 응답 내용을 [표 14, 15]에 나누어 정리하였다. 전체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제도 차원의 근본적 해결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14]에 제시된 내용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폐지나 개선에 관한 의견이다.

[표14] 7차 교육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제언

제도적 개선 제언

- 특별 보충 교육과정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리고 유급과 진급 제도를 포기한 반쪽 짜리 교육과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7차폐지
-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강행을 하는 행정 편의주의 배격
- 실험적, 이론적인 교육정책 반대. 계획단계에서 현장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침으로써 서서히 변모하는 정책 개발 필요
- 도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향으로 인한 도시, 농촌 지역간의 수준차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 반영
- 학교사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교사 재량권 확보
- 교육과정 실시 전 교사 연수 강화
- 초등 영어교육과의 연계 강화 및 쓰기 훈련 강화
- 개별학습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세분화된 능력별 반편성



[표 15]에 제시된 개선책은 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이다.

[표 15] 7차 교육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제언

교육 여건 개선 제언

- 학급당 인원수 조절을 통해 과밀 학급 문제 해소
- 교육 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적정 교사 수 확보
-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 경감
- 영어 교실 등 특별 교실 확보
-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 난이도 조절
- 교과 시수와 교재 분량의 적절한 조화
- 공동 자료 개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많은 현장 교사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 단계에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제도 보완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7차 교육과정의 근본취지는 실질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V. 결론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은 실시 첫해인 2001년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현장 여건을 무시한 채 강요되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현장 교사들은 비현실적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학생들간의 영어 실력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과, 초등영어 단계부터 누적되어 온 학습 결손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극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특별보충 과정 및 심화·보충과

정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현실적 여건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실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과정 자체가 현장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실질적인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어야, 그리고 단위학교 및 개별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신명나는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의 무관심과 반대’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위로부터 실험적인 제도를 강요하고 여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강행을 하면서, 적용단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은 학교나 교사에게 일임하여 ‘재량권’이라는 미명하에 무마하려 한다면, 교육과정의 실패의 원인은 자동적으로 ‘교사들의 비협조와 변화 거부’로 귀결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적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교육 내용의 질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은 교사들이 전하였다. 어느 교사의 말처럼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이지, 손님이 아니다.” 교육과정 계획 단계에서 주체가 소외된다면, “교사가 헌신하고 싶어도 현실은 너무 교사에게 무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정책 결정 단계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그리고 자율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새로운 교육과정의 실시와 함께 따르는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앞으로 상급 학년 및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생의 교과 선택’에 따른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교사 수급 실태 및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조사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학생들의 수준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초등영어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사교육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과업 중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자료(II)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교육과정 자료 84.
- 김석근 (2001). '7차 교육과정'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함께하는 영어교육, 51, 10-11. 동아일보 (2001. 11. 12). 전교조 "26일 총파업." [온라인기사] FTP: Hostname: www.donga.com Directory: fbin/searchview?n=200111120208
- 신기영 (2001). 영어 부진아 지도를 끝내고. 함께하는 영어교육, 51, 18-19.
- 이용숙 (연구책임자) (1998)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준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소.
- 이화진 (책임연구원) (2000).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지원 연구-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 (책임연구원) (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남규 (2000). 수준별 교육과정을 둘러싼 구체적 문제들. 함께하는 영어교육, 50, 10-18.

## 부 록

## 제7차 교육과정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외국어 교육 학술 토론회”(2001. 11. 23) 발표를 위한 조사입니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제7차 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을 현장 영어교사의 시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 현재 중학교 1학년 영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익명 처리될 것이며 위에 밝힌 발표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성 립(영신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영어교육전공)

2001. 10.

1. 근무하시는 학교와 소속 교육청, 담당 학년  
(        ) 시/도 (        ) 교육구/군청 (        ) 중학교 1학년 담당
2.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25년 미만(    )	⑥ 25년 이상 (    )

\* 각 문항의 해당 칸에 0표 해주십시오. 기타에 해당하거나 문항에서 구체적 내용을 묻는 경우 직접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1-16)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음단계 진급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단계 학습의 재이수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특별 보충 과정’ 운영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결손 없이 다음 단계로 진급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1학년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
  - ① 2학기 중 7-a, 7-b 두 개 수준 개설(    )(①에 답한 경우 17번으로 가십시오)
  - ② 특별 보충과정 운영(    )
  - ③ 기타:

2. 귀 학교의 영어과 특별 보충 과정 실시 여부
  - ① 계획대로 철저히 실시됨( )
  - ② 계획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실시됨( )
  - ③ 계획만 있고 전혀 실시되지 않음( )
  - ④ 계획단계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④에 답한 경우 15번으로 가십시오)
  - ⑤ 기타:
3. 특별보충 과정의 실시 시기
  - ① 학기중( )                      ② 방학중( )                      ③기타:
4. 특별보충 과정 대상 학생 선별 기준
  - ① 학교 정기고사성적으로 자동 결정( )      ② 희망자에 한함( )
  - ③ 학업성취 수준 미달자 중 희망자( )      ④ 기타:
5. 단계 진급을 위해 귀 학교에서 정한 학업 성취 기준: (      )%
6. 특별보충 과정 담당 교사 결정
  - ① 희망자 신청( )                      ② 교과협의회 결정( )
  - ③ 외부강사 초빙( )                      ④ 기타:
7. 특별보충과정 이후 진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면
  - ① 재평가 성적( )                      ② 특별보충과정 출석률( )
  - ③ 참가하면 출석률과 상관없이 자동 진급( )
  - ④ 기타:
8. 각 단계(7-a 또는 7-b)의 특별보충과정 편성 학급수: 총 (      )개 학급
9. 특별보충과정 담당 교사수: 각 단계 총 (      )명
10. 특별보충과정 참가 학생수: 각 단계 총 (      )명
11. 실시한 총 시간: 각 단계 총 (      )시간
12. 특별보충과정 실시 후 학습 결손의 보충 효과
  - ① 매우 효과적( )                      ② 효과적( )                      ③ 그저 그렇다( )
  - ④ 효과 없음( )                      ⑤ 전혀 효과 없음( )
13. 특별보충 과정 실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에 0표하십시오.
  - ① 학급당 과다 학생수( )
  - ② 참여 학생의 사기 저하( )
  - ③ 교사의 수업 부담 과중( )
  - ④ 예산 집행을 위한 강제적 집행( )
  - ⑤ 학생 출석률 저조 및 흡인 요인 부족( )
  - ⑥ 특별보충과정마저도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의 진급 결정( )
  - ⑦ 학생들의 수준차는 초등 영어학습의 결손이 누적된 결과이므로 이미 중학교의 특별보충과정만으로는 실력차를 좁히기 힘들다.( )
  - ⑧ 기타:
14. 위 문제에 대한 우선적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 보충 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소( )
  - ② 교사 수업시수 감소( )
  - ③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 재량 운영권 확보( )
  - ④ 기타:



III.(25-37) 실제 수업관련

25.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어과 시수는 1주당 3차시이지만, 재량활동시간에 특정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재량활동시간에 영어과목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②에 답한 경우 27번으로 가십시오)  
 ③ 기타:
26. 재량활동의 영어 수업 내용  
 ① 정규수업 진행( )                      ② 수업과 별도 내용으로 운영( )  
 ③ 기타:
27. 6차 교육과정 때와 비교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고 중학교에 진학한 현재 중1 학생들의 영어 실력차이가 어떻습니까?  
 ① 실력차가 아주 심하다( )              ② 어느 정도 실력차가 있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실력차가 별로 없다( )  
 ⑤ 실력차가 전혀 없다( )
28. 주로 담당하시는 학급의 수준 (29번부터는 이 문항에 답한 학습집단을 기준으로 답해 주십시오.)  
 ① 보충 학습 집단( )                      ② 기본 과정 학습 집단( )  
 ③ 심화 학습 집단( )                      ④ 모든 수준이 혼합된 전체 집단( )  
 ⑤ 기타:
29. 1차시 수업에서 교사의 평균 영어 사용 시간  
 ① 0-10분( )      ② 11-20분( )      ③ 21-30분( )      ④ 31-45분( )
30. 교사의 영어표현의 성격  
 ① 수업 초반이나 뒷부분의 인사말 등 의례적 표현에만( )  
 ② 수업 운영을 위한 지시, 명령어(Classroom English)는 항상 영어 사용( )  
 ③ ①,②를 포함하여 내용 설명까지( )  
 ④ 기타:
31. 교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      ② 교사의 영어사용능력 부족( )  
 ③ 학생들이 호응하지 않으므로( )      ④ 기타:
32. 학생들의 영어 음성언어 사용 실태  
 ① 거의 사용하지 않음( )                      ② 말하기 수업에서만( )  
 ③ 거의 모든 수업에서 영어사용( )      ④ 기타:
33. 제7차 교육과정 실시 후 교사 자신의 수업 방식 변화  
 ① 새롭게 변화하였다( )                      ② 대체로 많이 변화하였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변화하지 않았다( )  
 ⑤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                      ⑥ 기타:
34. 수업에서 학생간의 의사소통 활동(communicative activity) 및 과업(task)이 차지하는 비율: 한 단원(lesson) 수업에서 ( ) %
35. 수업에서 활용하는 매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카세트 녹음기( )      ② 비디오( )                      ③ 컴퓨터( )

- ④ 인터넷( )                      ⑤ OHP( )                      ⑥ 실물화상기( )  
 ⑦ 40인치 대형화면( )    ⑧ 인형 등 소도구( )    ⑨ 단어나 그림 카드( )  
 ⑩ 유인물(handout)( )    ⑪ 기타:
36. 교과서 내용 활용 정도(심화/보충용 부분 제외)  
 ① 모두 다룬다( )  
 ②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나머지는 교사가 개발( )  
 ③ 거의 다루지 않고 대체교과서 활용( )  
 ④ 기타:
37. 제7차 교육과정 시행된 이후 정규 수업에서 어려운 점에 모두 0표하십시오.  
 ① 학생들의 수준차( )    ② 높아진 교재수준( )    ③ 과도한 교재분량( )  
 ④ 교자재 개발 부담( )    ⑤ 과도한 수업시수( )    ⑥ 기타:

**IV.(38-42) 제7차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

38.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형 교과 등 제 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에 대한 태도  
 ① 적극 찬성( )                      ② 대체로 찬성(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반대( )                      ⑤ 적극 반대( )
39. 영어과와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에 0표 하십시오.  
 ① 말하기, 듣기 강화( )                      ② 학생중심의 학습활동 위주 수업( )  
 ③ 학업 결손 보충을 지원( )                      ④ 수준별 개별 학습 제공( )  
 ⑤ 교재 내용이 참신하고 흥미로움( )    ⑥ 학생의 교과 선택권 제공( )  
 ⑥ 기타:
40. 영어과와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에 0 표하십시오.  
 ① 초등 영어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  
 ② 학생 수준차 심화( )  
 ③ 특별 보충 과정의 형식적 운영( )  
 ④ 수준별 수업으로 위화감 조성 및 학습동기 저하( )  
 ⑤ 교사 수업시수 증가 등 업무 부담 과중( )  
 ⑥ 기타:
41. 영어과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처음 실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중간 평가  
 ① 매우 성공적( )                      ② 대체로 성공적( )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실패( )                      ⑤ 완전히 실패( )
42.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견을 써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